‘-코’말음 부사에 대하여*

배영환(한국학중앙연구원)**

〈목 차〉

1. 서언
2. ‘-코’말음 부사의 어기의 특징
3. ‘-코’말음 부사들의 형성 양상
4. ‘-코’말음 부사들의 형성 과정
5. 결어

1. 서언

본고는*[1] 현대국어의 ‘코’를 말음으로 가지는 일련의 부사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그 형성 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코’를 말음으로 갖는 부사와 관련하여 <한글맞춤법>의 제40항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1) 제40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 이 글은 2008년도 국어문학회 춘계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값진 토론을 해주신 신은수 선생님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는 온전히 필자 자신에게 있음을 밝힌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연구원

www.kci.go.kr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예) 간편하게-간편케 , 연구하도록-연구토록 등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예) 않다, 그렇다, 아무렇다 등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 등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위의 <한글맞춤법>의 제40항은 어간 말음이 '하'인 동사의 활용형에 대한 표기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그 중 [붙임3]의 기술은 용언의 활용형이라도 현실적으로 부사로 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단어는, 그 본 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곧, '결단코, 결코' 등을 '하-'가 결합한 어형으로 보지만, 이들을 'X하다'의 활용형으로 보지 않고 어휘화한 부사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용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서술적인 기능은 없고, 오히려 부사와 같이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부사로 처리하여 소리대로 적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의 예에서 '아무튼, 요컨대, 하마터면, 하여튼'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사들은 말음이 '코'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코'를 말음으로 갖는 일련의 부사들은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들은 기원적으로 '하-(<ᄒᆞ-)[爲]+-고'가 결합된 후 축약[2]에 의해 '코'말음 어형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들이 'X하고'에서 줄어든 형식인 'X코'에 기원하지만, 일부의 어형은 현대국어에 그것에 대응하는 'X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가. 결단코-결단하다
나. 무심코-무심하다
다. 맹세코-맹세하다
(3) 결코-*결하다

2) '하고'가 '코'로 줄어든 것은 '하'의 말음 'ㅏ'의 탈락이 이루어지고 'ㅎ+ㄱ→ㅋ'의 축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축약'은 음절 축약까지 감안한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www.kci.go.kr

위에서와 같이 '결단코'와 '무심코'와 같은 부사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X하다' 형식이 존재하는 반면 (2)의 '결코'는 그것에 대응하는 'X하다' 형식이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심하고'가 줄어들어 '무심코'가 형성되었다는 설명 과정은 이해가 되지만,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결하고'가 줄어들어 '결코'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그 밖의 다른 '코'말음 부사들도 'X코'라고 하는 결과만 존재할 뿐 그 형성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코'말음 부사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주로 '코'에 선행하는 어기를[3]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주로 어휘화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코'말음 부사의 어기의 특징

'코'말음 부사들의 공통 요소인 '코'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일부 한자 어근이나 명사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분류하면서 그 예로 '결단코, 기어코, 맹세코, 한사코'를 들고 있다.[4]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코'말음 부사들은 전체 16개에 이른다.[5]

(4) 결단코, 결코, 결사코, 기어코, 기필코, 단연코, 단정코, 대정코, 맹세코, 무심코, 분명코, 생심코, 잠자코, 정녕코, 필연코, 한사코

(4)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코'말음 부사들의 목록이다. 위의 예를 통해 볼 때 생각보다는 '-코'말음 부사의 예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말큰사전』(1992)에서는 '-코'에 대해 "'…하다' 꼴 풀이씨의 뿌리에 붙어, 일부 어찌씨다운 말을 이루는 '-하고'의 준말"로 설명하고 있다.[6] '-코'를 분명히 '하고'에서 줄어든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연세한국어사전』(1998)에서도 '-코'를 접미사로 설정하고 있는데, "일

3) 본고에서 사용하는 語基는 이익섭(2000)에 따라 語幹과 語根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4) 이하 '코'말음 부사를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따라 '-코'말음 부사로 통칭한다.
5) 그 밖에 북한의 문화어로 제시된 '불원코, 불피코, 진정코' 등의 어사들도 있다.
6) 『우리말큰사전』에는 '결사코'가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www.kci.go.kr

부 한자어의 어근에 붙어, 부사를 이루는 말로 '그런 일을 할 만큼'의 뜻을 나타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재된 어형은 '결단코, 결코, 기어코, 단연코, 맹세코, 무심코, 잠자코, 정녕코, 필연코, 한사코' 등이 있다. 『연세한국어사전』(1998)은 등재된 어휘의 수는 적지만 '-코'에 대해 '그런 일을 할 만큼'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큰사전』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사전에 보이는 '-코'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의 사전의 성격이 그렇듯 지나치게 간단하여, '-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코'가 가지는 성격이나 의미 등에서 전혀 언급이 없어 이들 어형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코'말음 어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도 대부분 개별 어사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들 어형 전체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이들의 특성을 논의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코' 말음 부사에 대한 이른 시기의 언급은 李弼洙(1922)에서 보인다.[7] 이필수(1922:72)에서는 부사를 몇 가지로 분류하면서 '결단코'를 '동작 및 성질부사' 중 "決心의 義를 示할 時"로 제시하였다.[8] '결단코'를 부사로 처리한 것은 주목할 만하나 '결단코' 이 외에는 다른 '-코'말음 부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 '결단코'의 성격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표기법에 관한 언급이지만 조선어학회(1933:47)의 다음과 같은 조항은 이들의 어원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으로 보인다.

> (5) 第五十七項 다음의 말들은 그 語源的 原形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다.(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 | 例 | 甲 | 乙 |
> |---|---|---|
> | | 결코 | 겋고 |
> | | 하마트면 | 하맣드면 |

7) 李弼秀(1922) 이전에 '-코'말음 부사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주시경이나 김두봉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李弼秀(1922)를 '-코'말음 어형을 부사로 처리한 최초의 논의로 보기로 한다.

8) 이 밖에 동작 및 성질 부사에는 '물론, 아니, 능히, 못, 아마, 이러케, 그러케, 저러케' 등이 있다.

www.kci.go.kr

위의 (5)는 '결코'와 '하마트면(→하마터면)'을 그 어원(결ᄒᆞ다, ᄒᆞ마ᄒᆞ드면 등)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 국어의 '-코'말음 부사를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코'에 대한 언급만 있지 '결단코'를 비롯한 그 밖의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말음 부사에 대한 보다 진전된 설명은 李熙昇(1950)에서 보인다. 이희승(1950:280)에서는 '-코'를 '하고'가 줄어든 형식으로 보고 語源的 語根에 붙어서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어형으로 '결하고>결코, 단정하고>단정코, 단연하고>단연코, 정녕하고>정녕코, 필연하고>필연코, 무심하고>무심코'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코'말음 어형을 조어론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코'를 접미사로 처리하였고, 그 앞의 '어근'의 성격까지 설명하려 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논의는 허웅(1995:459)에서도 보이는데, '-코'말음 부사를 임자씨나 특수뿌리와 뒷가지(접미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고 '결단코, 맹세코, 무심코'는 임자씨에 '기필코, 정녕코, 한사코'는 특수뿌리에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고영근(1989:524)에서는 '-코'를 '요컨대' 등의 '-컨대'와 함께 다루면서 이들을 '-고'와 '-건대'로 분석하는 편이 낫다고 하였다. 그것은 有氣的 요소를 접사의 편에 두는 것보다 어근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미의 접사적 직능 발휘의 전반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코'말음 부사를 '하-'에 기원한 다른 어형과 동일한 시각에서 보려는 태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코'말음 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나 분류를 한 것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들 전체 어형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이 '-코'말음 부사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전반적인 설명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코'말음 부사들은 일단 선행하는 語基와 '-코'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하는 어기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먼저 '-코'에 선행하는 어기들은 대부분 한자어에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다.

(6) 가. 결단(決斷)코, 결(決)코, 결사(決死)코, 기어(期於)코, 기필(期必)코, 단연(斷然)코, 단정(斷定)코, 대정(大定)코, 맹세(盟誓)코, 무심(無心)코, 분명(分明)코, 생심(生心)코, 정녕(丁寧)코, 필연(必然)코, 한사(限死)코
나. 잠자코

www.kci.go.kr

(6)은 '-코'에 선행하는 어기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위의 예에서 (6나)의 '잠자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들은 어기에 대응하는 한자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잠자코'에 대해서도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潛潛+ᄒᆞ-+-고'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코'에 선행하는 어기는 한자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9)]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코'말음 부사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X하다'의 형식이 사전에 올라 있는 어형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코'가 '하고'에서 줄어든 형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특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코'말음 부사 가운데는 그것에 대응하는 'X하다'형식이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7) 가. 결단코-결단하다, 결사코-결사하다, 기필코-기필하다, 단연코-단연하다, 단정코-단정하다, 대정코-대정하다, 맹세코-맹세하다, 무심코-무심하다, 분명코-분명하다, 생심코-생심하다, 정녕코-정녕하다, 필연코-필연하다, 한사코-한사하다
나. 결코-*결하다, 기어코-*기어하다, 잠자코-*잠자하다

(7)은 '-코'말음 부사와 그것에 대응하는 'X하다'를 보인 것이다. (7가)는 '-코'말음 부사와 그에 대응하는 'X하다'의 양상의 예이다. '-코'말음 부사 중 대부분이 그것에 대응하는 'X하다'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도 실제 분포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는 한다. 가령, '단정하다'나 '맹세하다, 무심하다, 분명하다' 등은 비교적 널리 쓰임에 반해 '결사하다, 기필하다, 단연하다, 대정하다, 생심하다, 한사하다' 등은 구어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사전에 올라 있는 어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7나)에서와 같이 '*결하다, *기어하다, *잠자하다' 등은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어형일 뿐 아니라 실제 구어체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어형이다. 그러므로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X하다'가 줄어 들어 '-코'말음 부사가 되었다고 설명하려면 이들에 대해서는 설명 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어형들은 'X하고'

9) 그러나 '-코'말음 부사들이 왜 '한자어+하다' 어형에 한하여 기원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하다' 앞에 올 수 있는 어형이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www.kci.go.kr

가 줄어들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 시기에 'X하–' 형식이 존재하던 시기에 'X하고'가 줄어들어 '–코'말음 부사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들은 이전 시기에 'X하–'가 있었고 그 'X하–'가 없어지고 그 활용형이 어휘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10]

'–코' 부사와 관련한 또 하나의 특징은 '–코'에 선행하는 어기의 말음이 모음이나, 'ㄹ, ㄴ, ㅁ, ㅇ' 등이고, 그 밖의 폐쇄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에 선행하는 어기의 말음이 폐쇄음일 경우에는 '하'가 그대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 전체가 탈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11] 즉, '하' 앞의 말음이 폐쇄음일 경우에는 '–코'와 같이 후행 어미와 축약된 형식은 애초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12] 이들 모음이나 'ㄹ, ㄴ, ㅁ, ㅇ'의 공통적인 자질은 [+공명성]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코'에 선행하는 어기의 말음은 음운론적으로 [+공명성]을 만족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명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어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어형이 '–코'말음 부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결심하다'나 '철저하다' '무정하다' 등 충분히 '–코'말음 부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지만 이들은 '*결심코, *철저코, *무정코' 등과 같은 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코'말음 부사에 포함되는 어형과 그렇지 않은 어형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곧 '–코'말음 부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둘째, 선행하는 어기가 한자어에 기원하지만 어기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즉, 어떠한 어기는 자립성이 있어 독자적으로 문장에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떠한 어기는 자립성이 없어 독자적으로 문장에 나타날 수 없는 어형도 있다.

(8) 가. 결단(決斷), 기필(期必), 단연(斷然), 단정(斷定), 맹세(盟誓), 분명(分明), 정녕(丁寧), 필연(必然)

---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함.

11) 가령 '두렫ᄒᆞ-'[圓]의 경우에는 '두렫고'와 '두렫ᄒᆞ고'로 나타날 수 있지만 '두렫코'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12) 중세국어의 'ᄒᆞ-'의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안병희(1978) 참조.

www.kci.go.kr

나. 결(決), 결사(決死), 기어(期於), 대정(大定), 무심(無心), 생심(生心), 한사(限死)

(8가)에서 '결단, 기필, 단연, 단정, 맹세, 분명, 정녕, 필연' 등은 독자적으로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어형들이다. 반면 (8나)에 제시된 어기는 독자적으로 문장에 나타날 수 없는 예이다. 또, (8가)의 예들도 실제 문장 중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차이가 있어 '결단, 기필, 단정, 맹세' 등은 명사로 기능할 수 있고, '단연, 분명, 정녕' 등은 그 자체로 부사로 기능한다. 그리고 '필연'은 명사나 부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사로 쓰이는 '단연, 분명, 정녕, 필연'과 '-코'말음 부사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큰 의미 차이 없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코'말음 부사는 'X하다'의 어형 비교해 볼 때 의미상 별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의미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 '-코'말음 부사와 'X하다' 어형의 의미

표제어	의미	표제어	의미
결단코	마음먹은 대로 반드시	결단하다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다.
결사코	죽기를 각오한 마음으로	결사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할 것을 결심하다.
기필코	=반드시	기필하다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하다.
단연코	=단연	단연하다	결연한 태도가 있다.
단정코	딱 잘라서 말하여	단정하다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다.
대정코	단연코 꼭	대정하다	결정적인 판단이나 단정을 내려서 정하다.
맹세코	다짐한 대로 꼭	맹세하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다.
무심코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	무심하다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없다.
분명코	틀림없이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다	모습이나 소리 따위가 흐릿함이 없이 똑똑하고 뚜렷하다.
생심코	감히 마음대로	생심하다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
필연코	'필연'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필연하다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되다.
한사코	죽기로 기를 쓰고	한사하다	죽기를 각오하다.

www.kci.go.kr

위 표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기대어 '-코'말음 부사와 대응하는 'X하다'의 의미를 재구성한 것이다. 위의 표를 통해 볼 때 '-코'말음 부사와 그것에 대응하는 'X하다' 어형 사이에는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단연코'의 경우에는 그 어기인 '단연'과 그 부사형 '단연코'가 동일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의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결단코'와 '기필코'의 경우에 '반드시' 정도로 그 의미가 강화되었고, 『우리말 큰사전』(1992)에서는 '단연코'를 "'단연'의 힘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코'말음 부사들이 그 어기보다는 의미에 있어서 '강조'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코'말음 부사들이 '꼭'이나 '반드시' 등의 의미를 첨가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또, '필연코'의 경우도, '필연'을 강조하는 어형으로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코'말음 부사들은 공통적으로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밖에 '-코'말음 부사와 대응하는 'X하다' 형식은 활용 양상에 별다른 제약은 없지만[13] 어미 '-고'와 결합이 어색한 어형도 있다. 또, 이러한 결합이 가능하여도 '-코'말음 부사와 'X하고'로의 대치가 어색할 뿐 아니라 '-코'말음 부사들과는 일정한 의미 차이가 있어 이 환경에서 'X하고'로의 대치가 어색하다.

(9) 가. 그는 죽기를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가′. *그는 죽기를 결단코 앞으로 나아갔다.
나. 그는 철수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출발하였다.
나′. *그는 철수를 범인으로 단정코 출발하였다.
다. 일단 조직이 이루어지면 죽음을 맹세하고 그 조직을 지켜야 할 것 아니오.
다′. *일단 조직이 이루어지면 죽음을 맹세코 그 조직을 지켜야 할 것 아니오.
라. 영희는 스포츠에는 무심하고 드라마에만 관심이 있다.
라′. ?영희는 스포츠에는 무심코 드라마에만 관심이 있다.

위의 (9)는 '-코'말음 부사와 대응하는 'X하다' 어형 중 비교적 빈도수가 높은 어휘의 활용 예이다. '결단하고, 단정하고, 맹세하고, 무심하고' 등과 같이

13) 물론, '단연하다' '기필하다' 등은 활용형 자체에 제약이 있다. '단연하다' 등은 관형형 어미의 구성인 '단연한 태도' 등과 같이 관형형 어미만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필하다' 등도 '기필할'과 같이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ww.kci.go.kr

‘-고’와의 결합에서 ‘-하-’의 말음 ‘아’가 탈락이 되지 않아, ‘X하고’로 실현되는 어형은 가능한 반면, ‘아’탈락에 이은 축약형 ‘X코’와 같은 활용형은 매우 어색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코’말음 부사들의 성립은 ‘X하고’에서 ‘X코’로 축약되어 성립되었지만 어휘화를 겪으면서 의미나 통사 기능에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코’말음 부사들의 형성 양상

‘-코’말음 부사가 형성된 과정은 기존의 논의에서 알려졌듯이 ‘X하고’가 ‘X코’로 축약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문헌 자료에 드러나는 ‘-코’말음 부사가 등장하는 시기는 어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코’말음 부사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용례가 나타나는 예는 현대국어의 ‘잠자코’와 관련 있는 ‘줌줌코’이다.

(10) 가. 세헨 부톄 神足 닷고ᄆᆞᆯ 닐어시ᄂᆞᆯ 줌줌코 對答 아니ᄒᆞᄉᆞᄫᆞᆸ미오<석보상절 24:2b>
나. 블근 벼개 노호ᄆᆞᆫ ᄆᆞᅀᆞ미 覺觀애 어울에 ᄒᆞ야 이 道애 줌줌코 處호미오(而默處是道也)<법화경언해 2:74b>

(10)은 ‘줌줌코’의 예로서, (10가)에서는 ‘줌줌코’가 ‘(부처께서) 잠잠하고 대답하지 않으심이요’와 같이 ‘줌줌코’가 서술어로 쓰였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으심이요’처럼 ‘잠자코’가 부사어로서 후행하는 ‘대답ᄒᆞ-’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10나)에서도 ‘道애’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處ᄒᆞ다’이지 ‘줌줌하다’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줌줌코’는 ‘處ᄒᆞ-’를 수식하는 부사어로서 원문에 ‘默’과 대응된다. 이 ‘줌줌코’를 ‘줌줌ᄒᆞ고’로 환원했을 때는 문장 자체가 어색해 보인다.[14] 이렇게 본다면 ‘줌줌코’는 15세기 국어에서부터 어휘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줌줌하고’와 같은 동사의

14) 물론, ‘줌줌코’가 현대국어의 ‘잠자코’로 변화되는 과정이 쉽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제2음절의 ‘줌’에서 ‘ㅁ’이 탈락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줌줌코’가 ‘잠자코’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www.kci.go.kr

활용형이 즘즘코와 같이 하나의 어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15]

'-코'형 부사 중 이른 시기부터 어휘화한 예에는 '맹세코'도 있다. 다음은 '맹세코'와 관련된 예이다.

(11) 가. 그 ᄌᆞ식ᄃᆞ리 이ᄆᆡ히 주거셔 각각 밍셰코 발원호ᄃᆡ 우리 나온다마다 제ᄌᆞ기 되어 ᄌᆞ라 닙 신커든 저롤 두고 우리 주거셔 술트리 셜워ᄒᆞ게 ᄒᆞ쟈<장수경언해,40b>

나. 내 이제 댱슈경의 모든 아히ᄃᆞᆯ 됴히 잇게 홀 타라니쥬를 듣즙고 내 밍셰코 발원ᄒᆞ노이다<장수경언해,50b>

다. 그런 거시 어ᄃᆡ 이실 것고 쳡 사모마 밍셔코 어더다 ᄒᆞ고 마디 아니니 간나히게 밍셰와 어ᄆᆡ게 밍셰와 어니야 경듕이 이실고<순천김씨언간,164>

(11)은 16세기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밍셰코, 밍셔코'의 예이다. (11가)에서 '밍셰코'는 문맥상 '밍셰ᄒᆞ고'로 치환하여도 가능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즉, "ᄌᆞ식ᄃᆞ리 밍셰ᄒᆞ고 발원호ᄃᆡ"로 치환하여도 어색하지 않다. 이때의 '밍셰코'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후행하는 '발원호ᄃᆡ'를 꾸며주는 요소로만 보기는 어렵다. (11나)도 "내 밍셰ᄒᆞ고 발원ᄒᆞ노이다"로 치환하여도 어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때의 '밍셰코'가 '발원ᄒᆞ노이다'를 꾸며 주는 요소로 볼 수 있지만 동사의 활용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1다)는 이 시기의 언간 자료에 나타나는 예인데, '밍셔코'는 '쳡 사모마'의 절을 논항으로 하는 동사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때의 '밍셔코'는 '밍셔ᄒᆞ고'로 치환 가능한 것이다.[16] 결국 16세기에 나타나는 '밍셰코, 밍셔코' 등은 '밍셰/밍서ᄒᆞ고'에서 'X코'로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의 '맹세코' 관련 어형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어휘화하

15) '어휘화'는 김성규(1987), 박진호(1994) 한용운(2005) 등의 논의에 따라 통사적 구성이었던 둘 이상의 형태소가 하나의 통사 단위가 되어 어휘부에 등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조항범(1998)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그런 것이 어디 있을 것인가? 첩 삼으마 맹세하고 얻어다 하고 그만두지 않으니 계집아이에게 한 맹세와 어미에게 한 맹세가 어느 것이 경중이 있을까?"로 하였다.

www.kci.go.kr

여 부사어로서의 기능을 보여 준다.

(12) 가. 모미 비록 촌촌이 싸홀려도 밍셰코 너를 좃디 아니호리라 ᄒᆞ니 도적이 드딕여 해ᄒᆞ니라<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8:39b>
나. 사홈을 이긔고 오면 큰 공을 세고 만일 블힝ᄒᆞ면 밍셰코 이 도적으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사디 아니호리라<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8:70b>

(12)는 17세기 문헌에 보이는 '밍셰코'의 예이다. (12가)에서 '밍셰코'는 뒤의 '너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와 호응을 이루는데 여기서는 부사적 기능을 보인다. 만약 '밍셰코'가 서술어로 기능한다면 '너를 좃디 아니호리라' 뒤에 놓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 앞에 놓여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밍셰코'가 어휘화되었기 때문에 수식어 앞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2나)의 '밍셰코' 역시 뒤의 내용과 호응을 이루는 부사적 기능을 보여준다. 특히 '밍셰코'가 오는 구문에서는 뒤의 서술어에 '-리-'가 결합되어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을 본용언 '밍셰ᄒᆞ고' 등으로 치환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물론 이 시기의 '밍셰ᄒᆞ고'는 거의 용언의 활용형으로서만 기능한다.

(13) 가. 김시를 그어내여 더러이고져 ᄒᆞ거ᄂᆞᆯ 주그므로뼈 스스로 밍셰ᄒᆞ고 손으로 쟈근 칼흘 빼여 목을 딜러 피를 흘려 주그매 니ᄅᆞ되<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4:23b>
나. 싀어미 김비 죽거ᄂᆞᆯ 거상 삼 년 닙고 복글 버스매 머리ᄂᆞᆯ 버혀 밍셰ᄒᆞ고 죵신토록 슈졀ᄒᆞ엿더니<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7:75b>

(13가)에서 '밍셰ᄒᆞ고'는 '스르로'를 논항으로 취하여 서술어로 기능을 한다. 이 시기의 '맹셰ᄒᆞ고'는 대부분 선행하는 명사류나 부사류의 서술어로 기능한다. 그런데 (13나)의 '밍셰ᄒᆞ고'는 어느 것과 호응을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의미상으로는 맹세한 내용이 뒷부분의 '종신 수절'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럴 경우 이 환경에서 '밍셰코'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에서의 '밍셰ᄒᆞ고'는 '밍셰코'로 실현되어도 무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결단코' 역시 어휘화한 예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18세기 문헌에서부터 그 예가 확인된다. 다음은 '결단코'의 예이다.

www.kci.go.kr

(14) 가. 만일 德行이시며 文學 잇는 이를 닐올띤대 小子ㅣ 결단코 敢히 當티 못ᄒᆞ리로다 결단코 敢히 當티 못ᄒᆞ리로다<오륜전비언해 1:16b>
나. 이 ᄀᆞ튼 쟈를 ᄯᅩ흔 가히 범연히 슈참ᄒᆞ고 무디망작ᄒᆞ므로써 의논ᄒᆞ리잇가 삼쳑이 지엄ᄒᆞ야 결단코 가히 용디티 못ᄒᆞᆯ 거시니 청컨대 역경의 소하뉵적을 쎨니 명ᄒᆞ오셔 나국엄문ᄒᆞ야 쾌정왕법ᄒᆞ여디이다<천의소감언해 2:43a>

위의 (14)는 '결단코'의 예인데, (14가)에서 "小子ㅣ 결단코 敢히 當티 못ᄒᆞ리로다"에서 '결단코'는 '결단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등의 의미로 쓰였다. (14나)의 '결단코' 역시 '결단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부사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뒤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현대국어와 동일한 기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예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코'말음으로 어휘화하여 부사로 변화한 것이다. 이들은 19세기 이전에 어휘화한 예들인데, 다른 '-코' 말음 부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앞선 시기에 어휘화를 겪었다. 그런데 '-코'말음 부사들이 현재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로 판단된다. 물론 19세기에 들어서면 현대국어와 같이 대부분의 '-코'말음 어형들이 확인된다.

(15) 가. 필경은 실샹 학문을 비화 가지고야 세샹에 힝세ᄒᆞᆯ 날이 분명코 잇슬 터이오<매일신문 621,2>
나. 머리 가진 거시 되여 금녕을 집어 삼키고 골노 들어 가거ᄂᆞᆯ 디경 왈 분명코 금녕이 죽도다 ᄒᆞ고<금방울젼 11b>

(16) 가. 진시 왈 일이 불가ᄒᆞ믈 니르미라 엇지 투긔ᄒᆞ미 이스리오 이 일이 필연코 후환이 되리니 가지 마르쇼셔<장한졀효긔 5a>
나. 새벽에 저길노 엇던 쳐자 가더이다 ᄒᆞ거날 좌수 탄식 왈 필연코 인함이도 제 형 죽은 대로 가셔 한가지로 죽엇도다<인향젼 43>

(15)는 '분명코'의 예이다. (15가)에서 '분명코'는 앞에 '힝세ᄒᆞᆯ 날이'의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뒤의 서술어 '잇슬 터이오'를 꾸며주는 부사로 기

www.kci.go.kr

능한다. (15나)에서의 '분명코' 역시 '금녕이 죽도다 ᄒᆞ고'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16)은 '필연코'의 예이다. (16가)의 '필연코'는 "이 일이 필연ᄒᆞ고"와 같이 본래의 어형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뒤의 '되리니'와 호응하여 부사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16나)의 '필연코' 역시 뒤따르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코'말음 부사들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코'말음 어형이 문증되는 것과 19세기 이후에 문증되는 예를 통해 출현 시기를 통해 두 부류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7) 가. 결단코, 맹세코, 잠자코 등
나. 결코, 기어코, 단정코, 무심코, 분명코, 필연코 한사코 등

(17가)에 제시된 '결단코, 맹세코, 잠자코' 등은 19세기 이전부터 문증되는 예이고, (17나)의 '결코' 등은 19세기 이후에 문증되는 예들이다. '결코'류는 대체로 19세기 후반이나 20세를 전후하여 문헌에 등장한다. 특히 19세기 후반의 고소설 자료나 20세기의 신소설 자료를 통해 볼 때 19세기와 20세기의 교체기에 현재와 같은 '-코'말음 부사의 형성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코'말음 부사들의 형성 과정

앞 절에서 보았듯이 19세기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코'말음 부사들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는가에 관심이 가게 된다. 다만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살려보기는 어렵지만 '결코'의 예를 통해 볼 때 어느 정도 형성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결코'는 '-코'말음 부사 중 부정 표현과 호응을 이룬다는 점에서 특이한 어형에 해당된다. 특히 현대국어에 그것에 대응하는 '결하다'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형성 과정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어사전』(1938)에는 '결코'와 '결하다'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뿐 아니라 '결코'도 현대국어의 의미와는 다르다.

www.kci.go.kr

(18) 가. 결코 : 부사 반드시, 꼭, 암만하여도, 행혀, 결단코
가′ : (‘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나. 결하다 : 결단하다. 결정하다. 決

(18가)는 『조선어사전』(1938)에 제시된 ‘결코’의 의미인데, ‘결코’가 ‘반드시’나 ‘꼭’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현대국어는 (18가′)에서와 같이 부정표현과 공기한다는 점에서 의미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20세기 초까지는 ‘결코’가 ‘반드시’의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현대국어로 오면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부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18나)에서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은 ‘결하다’가 있고, 그것의 의미가 ‘결단하다’나 ‘결정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결코’는 고소설 자료에서 나타난다.[17]

(19) 가. 림생이 결코 이십이 넘은 남자이라 엇지 나를 속이려 하나뇨<림화정연 1:45>
나. 진생이 대희 왈 명츈에는 쇼질이 결코 장원이 되오리니 슉모는 타의를 내지 마르시고<림화정연 1:68>
다. 나는 제 아비 죽인 원쉬 아니언마는 결코 해코자 하니 졔 비록 어사의 위권이 잇스나<림화정연 2:219>
라. 아모리 싱각을 흔디도 무단이 놀나고 무단이 무셔워홈은 결코 광증이로다 하 그 ᄉᆞ롬을 부졀업시 보닛도다<비행선 42>

(20) 가. 질아의 문장 풍채로써 엇지 슉녀의 배필을 근심하리요 쇼뎨는 결코 불가하니이다 <림화정연 1:30>
나. 이 일은 풍화의 쇼관이라 결코 허치 못 하리니<림화정연 1:36>

(19)에서 ‘결코’의 의미가 현대국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결코 이십이 넘은 남자’ “쇼질이 결코 장원이 되오리니” “결코 해코자 하

17) 여기 제시된 자료는 고전소설류는 세종계획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원문 확인을 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www.kci.go.kr

니", "결코 광증이로다"에서의 '결코'는 '반드시'나 '꼭'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 '결코'가 (20)에서와 같이 부정 표현과 공기하면서 '절대로'의 의미를 갖는 용법도 보인다. "결코 불가하다"나 "결코 허치 못 하다"에서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결코'에 대응하는 '결하다' 역시 이 시기에 나타난다. 고전 소설 속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예는 '결하다'가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18]

(21) 가. 이제 특별이 와 ᄒᆞᆫ 번 ᄌᆞ웅을 결ᄒᆞ고져 ᄒᆞᄂᆞ니<빙빙뎐 4:190>
나. 이ᄂᆞᆫ 국가ᄉᆡ라 예셔 결ᄒᆞ기 어려오니<븍송연의 107>
다. 남경왕이 ᄃᆡ왈 우리 양국이 ᄉᆞ싱을 결ᄒᆞ고 텬디쎄 밍셰ᄒᆞ얏ᄂᆞ니<김희경젼 266>
라. ᄯᅳᆺ를 결ᄒᆞ고 일러 ᄇᆡᄉᆞᄒᆞ고<권용션젼 123>

위에서와 같이 '결ᄒᆞ다'는 '자웅을 결하다', '여기서 결하다', '사생을 결하다', '뜻을 결하다'와 같이 주로 쓰여, '결정하다' '결단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 '결하다'의 활용형 '결하고'가 축약된 것이 '결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국어의 '결코'도 '결하고'에서 축약되어 형성되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코'말음 부사들은 어떤 환경에서 축약과 어휘화가 가능한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X하고'와 같이 본래의 어형과 'X코'와 같이 축약된 형식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X하고'가 선행하는 논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가질 때는 'X코'로 축약하지 않는다. 반면, 'X하고'가 'X코'로 축약된 어형은 대부분 'X코'가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X하고'를 대신할 동사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즉, 이때의 'X코' 형식은 서술어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화된다. 특히 '한사코'의 경우는 '-코'말음 부사들의 형성 과정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2) 가. 도로혀 ᄂᆞᆷ의게 슈욕 밧음을 보고 한ᄉᆞ코 못ᄒᆞ게 ᄒᆞ니<천로역정 109b>
나. 용련이는 한ᄉᆞ코 ᄲᅥ밀며 몸을 ᄲᅵ치랴 하고 장가는 한ᄉᆞ코 안ᄭᅩ 잡바지ᄆᆡ<츄텬명월 75>

18) 물론 '결하다'는 중세국어에도 그 예가 확인된다.

www.kci.go.kr

(23) 가. 금슬이 밀밀치 못ᄒᆞ시거니와 사ᄅᆞᆷ이 손의 화복을 쥐고 안ᄌᆞ ᄒᆞᆫᄉᆞᄒᆞ고 남의 ᄂᆡ외 ᄉᆞ이ᄅᆞᆯ 말니니<한중록 412>
나. 졍길이가 초립동이 ᄯᅥ부터 난봉을 부리면 거복이가 한ᄉᆞᄒᆞ고 만류ᄒᆞᄂᆞᆫ ᄯᅡ닥으로<빈상설 24>

(22)와 (23)은 '한ᄉᆞ코'와 그것의 대응형인 '한ᄉᆞᄒᆞ고'의 예이다. (22가)에서 '한ᄉᆞ코 못하게 ᄒᆞ니'의 예는 '죽기로 기를 쓰고'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위에서 '한ᄉᆞ코'는 '남의게' 정도를 논항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것과 긴밀하지 못하여 오히려 뒤의 '못ᄒᆞ게 ᄒᆞ니'와 호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22나)의 예에서도 '한ᄉᆞ코' '장가는'과 긴밀하기보다는 뒤의 '안ᄭᅩ 잡바지ᄆᆡ'와 호응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논항과 긴밀한 서술 관계에서 벗어나 후행하는 다른 요소와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환경에서 '한ᄉᆞᄒᆞ고'와 같이 '한ᄉᆞᄒᆞ-'의 활용형도 나타날 수 있었다. (23가)의 '쥐고 안ᄌᆞ ᄒᆞᆫᄉᆞᄒᆞ고'에서 ᄒᆞᆫᄉᆞᄒᆞ고'는 '화복을'을 논항으로 하여 대격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쥐고 안ᄌᆞ'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적 성격이 강한데, 뒤의 'ᄒᆞᆫᄉᆞᄒᆞ고'는 '화복'과의 관련성이 앞의 두 용언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뒤의 '말니다'와 호응하는 '한사코'의 의미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23나)에서도 '한ᄉᆞᄒᆞ고'가 '한사코'로 줄어들지 않은 어형인데, 앞의 '거복이'를 논항으로 하여 자동사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한ᄉᆞᄒᆞ고'는 동사적인 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선행하는 논항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뒤의 '만류ᄒᆞ다'와 호응 관계를 이루어 '한사코'로 축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ᄒᆞᆫᄉᆞᄒᆞ다'는 동사적인 기능이 없고 '한사코'에 화석처럼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X하고'가 'X코'로 줄어 드는 경우는 'X하다'의 본래 동사의 논항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는 '-코' 형식으로 축약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코'말음 부사로 어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4) 가. 오직 일됴의 분ᄒᆞᆫ 거술 결단ᄒᆞ고 병녁을 궁진이 ᄒᆞ야 형뎨 은ᄋᆡ롤 샹해오고<산성일기 56>
나. 이제 ᄯᅩ 망극ᄒᆞᆫ 화ᄅᆞᆯ 만나니 내 엇디 ᄡᅥ 살리오 ᄒᆞ고 스스로 결단ᄒᆞ고져

www.kci.go.kr

ᄒᆞ거ᄂᆞᆯ 집사람이 크게 저허ᄒᆞ더니<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6:73b>

(25) 만일 德行이시며 文學 잇ᄂᆞᆫ 이ᄅᆞᆯ 닐올ᄯᅥᆫ대 小子ㅣ 결단코 敢히 當티 못ᄒᆞ리로다 결단코 敢히 當티 못ᄒᆞ리로다<오륜전비언해 1:16b>

(26) 가. 제 어버이 남진 얼오려 ᄒᆞᆫ대 주고모로 ᄆᆡᆼ셰ᄒᆞ고 좃디 아니ᄒᆞ더니 여ᄃᆞᆲ 힛마니 을싱이 사라 오나ᄂᆞᆯ 도로 남진 겨지비 되니라<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1b>

나. 아비 ᄠᅳ들 앗고져 ᄒᆞ거ᄂᆞᆯ 주거도 좃디 아니ᄒᆞᆯ 줄 ᄆᆡᆼ셔ᄒᆞ고 얼구ᄅᆞᆯ 그려 ᄇᆞᄅᆞᆷ의 걸고 됴셕의 졔ᄒᆞ기ᄅᆞᆯ 몸 ᄆᆞᆺ도록 ᄒᆞ니라<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2:49b>

(27) 모미 비록 촌촌이 싸ᄒᆞᆯ려도 ᄆᆡᆼ셰코 너ᄅᆞᆯ 좃디 아니호리라 ᄒᆞ니 도적이 드ᄃᆡ여 해ᄒᆞ니라<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8:39b>

(24)에서 '결단하다'는 대체로 (24가)에서와 같이 '~을 결단하다'와 같이 대격을 나타내는 논항이 오거나 (24나)의 '스스로'와 같이 부사어가 논항으로 올 수 있다. 그런데 (25)의 '결단코'는 '결단하다'의 전형적인 논항 구조에서 벗어나서 '소자ㅣ'와 같이 주격이 선행하였다. 그러므로 본래의 통사 구성을 유지하지 못한 (25)의 '결단코'는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뒤의 '못ᄒᆞ리로다'와 호응하여 수식 관계의 기능을 갖는다. (26)의 'ᄆᆡᆼ셰ᄒᆞ다' 역시 '~으로'나 '~을'과 같은 논항 구조를 이끌게 되는데 (27)에서와 같이 'ᄆᆡᆼ세코'는 이미 'ᄆᆡᆼ셰ᄒᆞ다'가 갖는 본래의 논항 구조를 갖지 못하고, 뒤의 절 구조를 수식하게 되어 어휘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결국 '-코'말음 부사의 형성 환경은 'X하다'가 선행하는 논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가질 때는 'X코'로 축약되지 않고, 선행하는 논항과 긴밀하지 못하여 서술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축약되된다. 그리고 축약된 후에 '코'말음 부사로 어휘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체로 'X하다' 단독으로 출현할 때보다는 여러 동사 합성 형식에서 어휘화가 잘 이루어진다. 그것은 'X하다'의 서술어의 기능을 다른 동사가 대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www.kci.go.kr

5. 결어

본고는 현대국어의 '-코'말음 부사들의 형성 과정과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려는 논의였다. '-코'말음 부사들은 형성의 결과만 존재하지 그 형성 과정은 명확하지 않은데 이들 각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대국어에 이르렀는지 밝히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었다.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코'말음 부사는 기원적으로 'X하고'의 통사적 구성이 축약되어 어휘화한 것이다.
2. '-코'의 선행 어기는 한자어에서 기원하였고, 그 어기는 말음이 [+공명성]을 가진 어형인데, 이것은 '하-'의 수의적 축약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하다' 동사가 '-코'말음 부사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코'말음 부사들만의 공통성은 찾기가 쉽지 않다.
3. '-코'말음 부사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X하다'가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결하다, 기어하다, 잠자하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이전 시기에는 'X하다' 형식이 존재하였고, 그것의 활용형 'X코'가 어휘화한 것이다.
4. '-코'말음 부사들은 그 어기만으로도 부사로 기능하는 것이 많은데, 그 어기에 비해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
5. '-코'말음 부사들은 19세기 전후에 대체로 어휘화를 겪어 형성된다. 그 이전 시기에 어휘화를 겪은 어형은 '결단코, 맹세코, 잠자코'가 있다. 그 중 '잠자코'는 15세기에, '맹세코'는 17세기, '결단코'는 18세기에 형성되었다. 그 나머지 예들은 19세기와 20세기의 초기에 현재와 같이 어휘화되었다.
6. '-코'말음 부사의 형성 환경은 'X하다'가 선행하는 논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가질 때는 'X코'로 축약되지 않고, 선행하는 논항과 긴밀하지 못하여 서술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축약되고, 그 후에 어휘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체로 동사가 단독적일 때가 아닌 여러 합성 형식에서 어휘화가 잘 이루어진다.

www.kci.g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코'말음 부사가 왜 19세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코'말음 부사들 간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들의 통사 관계 등을 보완해햐 할 것이다. 또, '-코'로 축약된 환경과 그것이 어휘화를 겪는 과정이 보다 정밀하게 드러나게 하여 설명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www.kci.go.kr

〈참고 문헌〉

고영근(1972),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1)-확립기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논문집, 고영근(1989)에 재수록.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김상윤(2003), 「국어 어휘화 현상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국어연구회.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총서21, 국어학회.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 구조」, 국어연구 124, 국어연구회.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안병희(1978), 『십오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양명희(1998), 「부사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1)」, 『한국어학』 8, 173~206면.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재판)』, 학연사.

이진호(2002), 「화석화된 활용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25~57면.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이필수(1922), 「선문통해(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 공편(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3책, 탑출판사 재수록).

이현희(1985), 「'ᄒᆞ다'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누러ᄒᆞ다류와 엇더ᄒᆞ다류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2, 한신대학교.

이현희(1986), 「중세국어의 용언어간말 '-ᄒᆞ-'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이희승(1950),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조선어학회(1933), 「한글마춤법 통일안(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 공편(1983)」,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9책, 탑출판사 재수록).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언간』, 태학사.

최전승(2003), 「중세국어 '는 커니와'에서 공시적 방언형 '은(는)커녕' 계열까지의 통시적 거리」, 우리말글 28, 우리말글학회, 77~124면<최전승

www.kci.go.kr

(2004)에 재수록>.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도서출판 역락.
최형용(1997), 「문법화의 한 양상」,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69~489면.
최현배(1961), 『우리말본(깁고 고친)』, 정음문화사.
한용운(2005), 「한국어 문법 단위의 변화 유형에 대하여」, 한국사상과 문화 29, 한국사상문화학회, 295~316면.
허 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 문화사.

www.kci.go.kr

【국문 초록】

이 글은 현대국어의 '결코'와 같은 '-코'말음 부사들의 형성 과정과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논의한 것이다. '-코'말음 부사들은 형성의 결과만 존재하지 그 형성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들 각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대국어에 이르렀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코'말음 부사는 기원적으로 'X하고'의 통사적 구성이 축약되어 어휘화한 것이다. 이들 '-코'말음 부사의 선행 어기는 한자어에서 기원하였고, 그 어기는 말음이 [+공명성]을 가진 어형인데, 이것은 '하-'의 수의적 축약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하다' 동사가 '-코'말음 부사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코'말음 부사들만의 공통성은 찾기가 어렵다. '-코'말음 부사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X하다'가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결하다, 기어하다, 잠자하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이전 시기에는 'X하다' 형식이 존재하였고, 그것의 활용형 'X코'가 어휘화한 것이다. '-코'말음 부사들은 그 어기만으로도 부사로 기능하는 것이 많은데, 그 어기에 비해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코'말음 부사들은 19세기 전후에 대체로 어휘화를 겪어 형성된다. '-코'말음 부사의 형성 환경은 'X하다'가 선행하는 논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가질 때는 'X코'로 축약되지 않고, 선행하는 논항과 긴밀하지 못하여 서술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축약되고, 그 후에 어휘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체로 동사가 단독적일 때가 아닌 여러 합성 형식에서 어휘화가 잘 이루어진다.

핵심어: '-코' 말음 부사, 어휘화, X하다, 축약, 논항

www.kci.go.kr

【Abstracts】

On '-ko' Final Adverb

Bae, Young-hwan

This article discussed the formation and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ko(코)' final adverb like 'gyeolko(결코)' in modern Korean. The '-ko' final adverbs have only the result of their formation, but not the process of their formation. This article tried to find through which process each of the adverbs has reached modern Korean. Originally the '-ko' final adverb was contracted and lexicalized from the syntactic constructions of 'X하고'. The preceding base of these '-ko' final adverbs originated from Chinese character, and the word form of base has the [+sonorant] at ending word tha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optional contraction of 'ha-'. However, as all 'X하다' verbs that satisfy these conditions do not reduce to '-ko' final adverb, it is hard to find the community of those '-ko' final adverbs. In some cases, '-ko' final adverbs do not have a corresponding 'X하다' in modern Korean as 'gyeolhada(결하다), gieohada(기어하다), jamjahada(잠자하다)' etc. All of these words had the form of 'X하다' before and were lexicalized from their conjugated form 'X코'. There are lots of '-ko' final adverbs that perform the function of adverb with only their base, having the meaning of 'emphasis' compared to their base. The '-ko' final adverbs, in general, were formed through lexicalization before and after the 19th century. As for the environment of formation of '-ko' final adverb, it is judged that 'X하다' did not reduce to 'X코' when it played the role of

www.kci.go.kr

predicate by being closely related with the preceding arguments, it did reduce when its role as predicate was weakened by not being closely related with the preceding arguments, before undergoing the lexicalization. Therefore the lexicalization is well conducted not in an independent verb, but in a synthetic verb.

Key Words: '-ko' final adverb, lexicalization, hada(하다), contraction, arguments

투고자: 배영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부영아파트 107동 1303호
소속: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연구원
전화번호: 011-9409-9034
이메일 주소: y-hbae@hanmail.net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www.kci.go.kr